강진 **최제영**

곡성 **김광휘**

광양 **김충권**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 **김승호**

순천 **김종영**

신안 **박응식**

장성군-상무대, 상생의 교류 이어간다

유두석 군수, 상무대 교육생 특강 '자원순환 힘 모으자' MOU 체결

장성군과 상무대가 상생의 교류를 이어가 눈길을 끌고 있다.

장성군 삼서면에 위치한 상무대는 한국은 물론 아시아 전체를 통틀어 가장 큰 육군 전투병과 군사교육 시설이다. 대한민국 육군 전투력의 근간인 초급 간부들을 육성하는 산실인 상무대는 보병학교·포병학교·기계화학교·공병학교·화생방학교로 구성돼 있다.

민선 6기 들어 장성군과 상무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다.

실제로 장성군은 기계화학교 등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기갑 예비역 대령 출신을 상무대 협력관을 채용해 상무대와의 협력 의지를 보여줬다. 또 상무대 장병의 문화탐방 및 지역투어를 지원하고, 상무대 안에 무인 민원발급기와 농특산물 홍보관을 설치하며, 23억원을 들여 상무아파트와 상무대를 잇는 자전거도로를 조성하는 등 상무대와의 상생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상무대 역시 장성군의 이 같은 노력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 상무대는 지난해 동화면에 위치한 포 대대의 부대 애칭을 '백룡대대'에서 '변이중대대'로 변경하며 장성에 대한 애정을 과시했다. 장성 출신인 변이중 선생은 임진왜란 당시 화차를 만들어 행주대첩을 승리로 이끈 위인이다. 현재 상무대는 '홍길동축제' 때 군악대 공연을 지원하고 지역 홍보에도 동참하는 등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11일 상무대에선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이날 포병학교 변이중관에서 포병학교 기간 간부들을 대상으로 장성군과 상무대의 우정이 갖는 특별한 의미를 재확인하는 특강을 했다.

유 군수는 "그동안 장성군과 상무대는 상생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라면서 "장상무대 교육생들을 위해 장성지역 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상무대 가족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축구장을 구비한 상무평화공원을 완공하고 상무대 교육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호국공원 조성 사업도 장성공원 개선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유 군수는 "상무대 역시 지역 정화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기적으로 관내 식당을 이용하면서 군민들로부터 호감을 얻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장성군과 상무대는 상생의 MOU(업무협약)를 체결하기도 했다.

장성군은 상무대 생활폐기물을 품목별로 분리·배출함으로써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해 상무대와 7개 학교(보병학교·포병학교·기계화학교·공병학교·화생방학교·상무대근무지원단, 제51군수지원단)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한다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장성=반정모 기자

함평군, 식품공중위생관리·음식문화개선 우수기관 '2관왕'

함평군이 올해 전남도 식품·공중위생관리, 음식문화개선사업 업무평가에서 모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업소 지도점검, 유통식품 안전성검사, 식중독 예방사업, 소비자신고센터 민원처리 등을 평가한 결과다.

또 음식문화개선 추진체계구축, 음식점 위생등급제, 좋은식단 실천운동, 함평천지한우비빔밥 음식테마거리 등 시책발굴사업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상사업비 1천만원도 수상했다.

함평군은 사업평가를 대비해 안전먹거리 제공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식품제조 및 접객업소, 숙박업소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했다.

다시 오고 싶은 음식점을 만들기 위해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깨끗한 환경, 음식, 복장 갖추기 등 3대 청결운동을 추진했다.

관내 음식점 305곳을 대상으로 개인위생, 주방관리,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컨설팅 사업도 2차례 실시했다.

깨끗한 위생업소를 조성하기 위해 일반음식점 107곳에 주방, 화장실, 객실 등 시설개선을 지원했다.

함평천지 한우비빔밥 음식테마거리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체계적인 음식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 취득반을 운영했다.

식중독을 예방하고 덜어먹기를 생활화하기 위해 앞접시, 집게, 국자 등을 제공토록하고 주민교육 홍보사업을 적극 펼쳤다.

함평=김광춘 기자

고흥군, 청정해역 유지에 최선

고흥군은 해양 정화사업을 위해 9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고흥의 청정해역을 유지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삼면이 바다인 고흥은 톳, 김, 굴 등 풍부한 수산자원과 함께 녹동항 바다정원 등 볼거리로 최근에는 여가·레저 활동을 즐기기 위해 고흥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청정해역을 유지코자 군은 득량만 상단 및 나로도지구의 양식어장 552ha 어장경운과 오폐물 143톤을 인양·처리 하였으며 소록도, 및 나로도의 도서 등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취약지구에 방치된 해양폐기물 118톤을 수거했다. 또한 조업 중 인양된 폐기물 281톤을 수매·처리 양식어장 및 해양쓰레기 정화에 1,820명을 동원 542톤을 수거·처리하였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청정해역 고흥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화활동을 전개해 청정고흥을 유지 보존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2018년도 해양환경 정화사업 7종에 9억 3천만 원을 투입 지속적인 정화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보성군, 치매관리사업 '최우수기관' 선정

보성군보건소는 지난 6일 전남도 광역치매센터 주관 '2017년 치매관리사업 발전대회'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치매가족 자조모임,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실적 등 치매관리사업 전반에 대한 10개 항목평가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군은 치매국가책임제와 관련하여 치매예방, 상담, 조기진단, 보건·복지자원 연계 및 교육 등 유기적인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인식 전환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지난달 치매안심센터를 임시 개소하여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1:1 맞춤상담, 검진, 관리, 서비스 연결까지 통합적인 지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시설신축은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 7억 원을 들여 종합적인 치매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보성읍 주봉리 군유지에 연면적 240㎡, 2층 규모로 사무실, 상담실, 검진실, 교육실, 프로그램실, 가족카페 등을 갖춰 조기검진팀, 등록관리팀, 가족지원팀, 인식개선·홍보팀, 쉼터팀 등 5개의 팀 15명 내외의 인력을 확보하여 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치매환자와 가족의 간호문제 등 올바른 인식을 통한 사회적지지 및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및 사업 발굴에 힘써 웰빙에서 웰다잉까지 건강한 보성만들기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보성=안구일 기자

영광군, 맑은 물 공급 위해 최선

계속된 가뭄에 따른 상수원수 부족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군에서는 최근 가뭄으로 인하여 상수원 수위가 낮아져 수질이 양호한 상층수 취수가 더 이상 불가능해지고, 노후 상수도관 내 퇴적 물량이 많아짐에 따라 영광읍, 법성면 일부 지역에서 탁수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관내 5개 정수장에 대한 매월 수질검사를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검사한 결과 먹는물 수질 기준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이후에도 정수시설의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통해 군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탁수가 발생한 경우 20~30분 정도 흘러 보낸 후 사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집중호우가 없는 마른장마가 계속될 경우 제한급수가 불가피하므로, 각 가정 및 사업체에서는 옥내 누수를 점검하고 물아껴 쓰기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영광=서희권 기자

구례군, 지리산 꽃나물 명가육성 평가회

쑥부쟁이 활용 식단 개발·보급으로 상생 계기 마련

구례군은 지난 8일 샤브한쌈(대표 김혜숙)에서 쑥부쟁이 재배 농업인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리산 꽃나물 명가육성 시범사업 평가회'를 개최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 창조지역 공모사업인 야생화 오감만족프로젝트 일환인 '지리산 꽃나물 명가육성 사업'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지리산 꽃나물 중 하나인 쑥부쟁이를 활용한 음식 개발을 위해 연구해 온 ㈜구례삼촌 이명엽 대표가 샤브한쌈(대표 김혜숙)과 태양식당(대표 임정희) 2개 음식점에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현대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쑥부쟁이 산채밥상, 쑥부쟁이 월남쌈, 쑥부쟁이 비빔밥, 소스 등을 컨설팅하여 새로운 메뉴 리뉴얼로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이번 평가회를 마련하였다.

박노진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우리군 대표나물인 쑥부쟁이를 활용한 식단의 개발·보급을 통해 재배농가와 음식점이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내년에도 읍면별 대표 지리산 꽃나물 명가육성을 목표로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